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북미 】

### 미 연준, 2011년 성장률 하향 조정

-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 11월 의사록에 따르면 미 연준은 2011년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치보다 하향 조정하면서, 실업률 또한 2012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.
  - 연준이 전망한 2011년 미국 GDP 성장률은 당초 3.5~4.2% 수준이었으나 이번 의사록에서는 3.0~3.6%로 수정하였으며, 현재 9.6%에 달하는 실업률은 2011년 9% 수준에서 2012년 8%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.
  - 2012년 실업률 8%는 천만명 이상의 실업자 수를 의미하는 높은 수준으로 연준은 실업률이 당초 예상보다 더디게 하락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,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는 적정 실업률 수준도 6%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.
  - 11월 23일 S&P 500지수는 연준의 경제성장 전망 하향과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, 한반도 긴장 확대 등으로 1.4% 하락함.
- 연준의 비관적인 수정전망에도 불구하고 개별 기업의 이익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경기회복의 원동력이 정부의 경기부양책에서 민간부문의 수익성 향상으로 변화되는 긍정적인 모습도 나타남.
  - 지난 화요일 상무부(The Commerce Department)는 3/4분기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연율 2.5%를 기록했다고 발표했고 기업부문의 수익성은 28%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  - 기업부문의 이러한 성장은 금융회사의 부실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고 해외영업 위주 기업들의 수익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나, 기업들의 수익성 증가가 고용창출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.
- 이번 의사록에는 2차 양적완화 조치를 결의한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 회의에서도 연준의 경기부양조치에 대한 반대론이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남.
  -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은 대규모 국채 매입조치가 경제성장과 실업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일부 의원들은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만 추가적인 부양조치가 필요하며 추가 부양조치가 예상치 못한 환율움직임과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함.

(Washington post, 11/23)